강관등표 도장방식 연구

- † 곽인규
- * (유)남진

요 약: 국내 연안에 설치된 항로표지(등부표,등대 등)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형식으로 제작 설치 되어 있다. 초기 구조물 제작시 파손 및 전단, 염해에의 한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반적인 색상표시 도장방식으로 마감처리 하여 설치 하였다.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파손, 도장부의 탈락으로 인하여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. 또한 부식진행 후 현장여건상 보수도장이 취약하고 보수 후에도 내구성 부족(방오수명 2년~3년)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. 그러므로 항로표지의 신규 설치시 강관조 형식의 설계적용이 요구되며 강관조의 가장 큰 취약점인 부식(녹)에 대한 방오방법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 또한 기 설치된 해상 금속구조물의 경우보수작업시 장비반입, 작업시간, 작업여건 등이 비말대, 간만대에 따라 변동 하므로 원칙적인 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. 그러므로 초기제작시 부식에 대한 방오도장이 시행 되어야 한다. 기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등표는 원칙적인 구조보강 검토 후 염해, 중성화 방지 도장을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

핵심용어 : 항로표지 , 부식 , 방오도장 , 염해중성화 방지

해상구조물의 파손



해상구조물의 부식



[†] 교신저자 : 8800hh@hanmail.net

1.현 황



신규 설치 및 보수 정비

- √ 콘크리트 형식의 구조물을 신규 설치시 강관조 형식으로 설계적용 요구됨.
- √ 해상설치된 기존 강관구조물의 보수시 장비 반입,비말대,간만대에 따른 여건
 으로 원칙적 보수는 불가능.
- √ 이로 인해 기존 강관구조물 보수시 해수면을 제외하고 부식부위를 제거 후 ㅂ스도자
- √ 콘크리트 형식의 구조물은 구조보강(단면보수보강)후 염해방지 도장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